



사회 >> 3면

노동·경경제 엇갈린 전망... 청년 고용 시장의 미래는?

기획 >> 4면

가을빛 품은 캠퍼스, 건물에 스며들다

현장르포 >> 5면

제로의 달콤한 함정... '0' 너머의 진짜 이야기

제593호

2025년 10월 1일(수)

## 한빛 총학생회, 전체 학생 대상 MT 성황리에 개최

우리대학 제53대 총학생회 한빛이 주최한 전체 학생 대상 MT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가평 어피어 연수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빛 총학생회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학우들에게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첫날 정오 무렵까지 교내에 집결한 학생들은 3대의 전세버스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짧은 이동 끝에 도착한 연수원에서 간단한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오후 일정의 시작은 조별 팀 빌딩과 레크리에이션이었다. 각 조는 팀을 구성한 뒤 노래 퀴즈, 상식 퀴즈, 인물 퀴즈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문제를 맞히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응원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고조됐다. 또한 조별로 짧은 릴스(Reels) 영상을 제작하는 미션도 주어졌으며, 학우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며 촬영에 임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게임 참여를 넘어 서로의 개성을 알아가고 자연스

럽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레크리에이션의 주요 순서는 장기자랑이었다. 각 조가 준비한 무대를 노래와 춤 등 다양한 형식으로 꾸며졌다. 무대에 오른 학우들은 준비한 끼와 열정을 보여줬고,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다. 특히 1등 팀에게는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 경품으로 제공됐다. 경품이 걸린 무대는 참가자들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 이어진 저녁

식사는 학우들의 만족감을 더했다. 고기를 구워 나눠 먹으며 하루 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또 다른 교류의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학우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로 가까워졌으며, 총학생회가 강조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아침까지 이어진 일정은 짧았지만, 학생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값진 경험으로 남았다. 단순한 친목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대학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즐기며

학교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한빛이 준비한 이번 전체 학생 대상 MT는 여러 기대 속에서 출발해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공약을 실천하는 동시에 학우들에게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빛나는 청춘의 순간, 2025 청야체전 성료



지난 9월 22일(월), 2025 청야체전 개막제 '花樣年華 : 花樣年華'가 스포츠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제53대 총학생회 한빛(이하 한빛)은 푸드트럭,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한빛은 총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스톤스퀘어, 간식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숨은 한빛 찾기, 인스타그램 이벤트, 서경 마블 등의 이벤트를

를 진행했다.

헤인관 앞 특설 무대에서는 '그라마', '철인 28호', 'SDR' 등 8개의 팀이 공연을 펼쳤다. 10개의 푸드트럭에서 닭강정, 아이스크림, 크림새우 등을 판매하며 개막제에 흥을 더했다. 은주1관 앞에 마련된 총학생회 부스에서는 포탈이나 학생증을 인증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돗자리 대여와 생맥주 무료 나눔이 이뤄졌다. 학우들은 스포츠클럽에 돗자리를 펼친 후 푸드트럭의 음식과 맥주를 즐기며 낭만 있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날 공연을 즐긴 이준휘(미용225) 학우는 "학우들과 함께 맥주와 닭강정 등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공연을 관람하니 너무 즐거웠다"며 "항상 꿈꾸던 대학 생활의 낭만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4일간 청야체전(이하 체전)이 진행됐다. 체전 상금으로는 △종합 1위 50만 원 △종합 2위 30만 원 △종합 3위 20만 원 △종목 우승 10만 원으로 총 180만 원이 제공대 학우들이 열정을 더욱 불태웠다. 이번 체전도 작년과 같이 발야구, 농구, 피구, 야구, 족구, 풋살, 판 뒤집기, 줄다리기, 이어달리

기 총 8개의 종목이 진행됐다. 한빛은 종합 순위 1~3위 학과를 맞추는 이벤트인 '서경 777'을 개최해 체전에 재미를 더했다.

시상식은 체전 마지막 날인 26일에 진행됐다. 종합 1위는 풋살, 발야구, 이어달리기에서 우수한 군사학과가 차지했다. 판 뒤집기와 줄다리기, 피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가 종합 2위를, 족구에서 우수한 경영학부가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체전에 참가한 오승배(미용225) 학우는 "체전에 이어달리기, 판 뒤집기 선수로 출전해 학우들과 연습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 뒤집기 경기 전날 팀원들과 소통하며 세웠던 전략이 잘 통해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체전을 통해 20살 청춘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 책으로 배우는 말의 힘... 풀잎봉사단 기획 봉사팀 성북구 '대학생 기획 봉사 프로젝트' 부스 운영



▲ 출처 : 성북구자원봉사센터

본교 풀잎봉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북구 '대학생 기획 봉사 프로젝트'에 연속 참여하고 있다.

기획 봉사팀은 스마트폰 기기 보급 확대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 △이동 친화적 콘텐츠 접근성 감소 △보호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등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이 혐오 표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이를 무

비판적으로 습득·재생산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순한 미디어 접촉 제한은 한계가 있으며, 옹고 그룹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디어 사용 절제와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동시에 돕는 실천 수단으로 '책 읽기'를 제안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청소년이 혐오 표현의 심각성과 부정적 영향을 깨닫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5일,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로비에서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부스 활동이 진행됐다.

부스 행사는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혐오 표현은 무엇일까? △왜 사용하면 안 될까? △대신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 스스로 고민하도록 했다. 이어 혐오 표현이 적힌 캡

슐을 뽑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고, 종이를 파쇄하는 체험이 진행됐다. 또 기획 봉사팀이 만든 동화책 『늑대와 토끼 이야기』를 읽고 삽화를 직접 그려보는 부채·슈링클스 만들기, 좋은 말·나쁜 말 카드 분리 게임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협을 표현은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친구가 나를 놀릴 때 올바른 행동은? △댓글을 달기 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등의 퀴즈 활동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활동이 마무리됐다.

기획 봉사팀은 오는 9월과 10월 후속 활동으로 팝업북 제작 및 기부, 부채·슈링클스 만들기, 그리고 『늑대와 토끼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자세히 보는 이슈

# 연달아 진행된 '한일' ·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 출처 : KBS뉴스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진행됐다.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과 미·중 경쟁 심화라는 격랑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걸고 나섰다.

먼저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현 정부는 경제·안보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 결과 두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해 정상 간 '서클 외교' 복원과 17년 만의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 언론 발표문 채택으로 이어졌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정상 간 '서클 외교'의

공식적인 복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년간 경직됐던 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일 3자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른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공동 언론 발표문은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개선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외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라는 이유가 존재한다.

이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공통의

경제적 위험 등 다양한 외부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후 8월 25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 및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를 통한 양국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존재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그 불안을 종식시켰다.

현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으로 설정했고 의미 있는 진전을 거뒀다.

이는 트럼프의 마스가(MASGA)에 발맞춘 조선 사업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 협력 합의 등 협력 방안의 구체화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과 그의 리더십에 대한 칭찬을 통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 씨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좋으나 정확히 무엇을 합의했는지는 모르겠다"며 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궁금해했다.

또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B 씨는 "정상회담도 좋지만 좀 더 국내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반된 반응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 평가와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각각 53.1%, 41.5%라는 결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60.7%가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렇듯,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다양한 성과와 과제를 남기고 종료됐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노동·경영계 엇갈린 전망... 청년 고용 시장의 미래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노란 봉투'는 시민들이 모금한 돈을 과거 월급봉투 색이었던 노란 봉투에 담아 이들을 지원한 사례에서 유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원·하청 노동자의 교섭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법의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달담을 만들어, 구체적인 법 적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법안의 원활한 안착과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년 투쟁의 결실로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영계는 법안의 모호성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참고: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를 향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취업이 어렵다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는 그들의 고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하



▲ 출처 : 매일경제

청 관계에서의 교섭권 보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대학생 A(20) 씨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고, 취업 준비 중인 강태연(23) 씨는 "노동권 보장이 강화되면 장기근속 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제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법적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도 보인다는 경고의 말을 남겼다. 이는 고질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어 열

린 '제27회 한국 경영학회 융합 학술대회'에서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는 "계속 기업가를 옥죄는 법안만 쏟아지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분위기라면 유능한 젊은이들은 창업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참고: 매일경제].

결국,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사 갈등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노동시장과 청년 고용 환경 전반에 직결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제 역할을 하며 균형 잡힌 고용구조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지는 이제 시행 이후의 노동시장이 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 108년 만의 최악 '가뭄' 강릉시... 재난으로 보는 '기후 위기의식'



▲ 출처 : 조선일보

지난 8월 30일, 강릉시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며 108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월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강우로 16.6%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년 저수율인 72%의 5분의 1도 못 미친다.

올해 6월~8월 강수량은 187.9mm로 평년 대비 30% 수준이다. 이것은 1917년 187.4mm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최근 6개월 강수량도 살펴보면 387.7mm로 평년 707mm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심각하게

낮아지자, 강릉시는 단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8월 20일부터 수도 계량기 50% 잠금을 실시했고, 8월 31일부터는 75% 잠금으로 강화했다. 9월 6일부터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113곳, 대형 숙박시설 10곳에 제한 급수를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 사태 선포와 함께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소방차 50대를 동원한 급수 지원을 시작했다. 산물 진화 헬기 4대와 군 헬기 5대까지 투입해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강릉시에선 전 시민 대상으로 1·2차 생수 배부를 진행했다. 2차 배부의 경우, 시민 1인당 2L짜리 생수를 12병 지급한다. 총 7,000t

규모로 지난 1차 때보다 물량을 늘렸다. 이번에는 1차와 달리 입원 환자, 대학생, 유학생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참고: 중앙일보].

강릉에 거주 중인 20대 A 씨는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고, 막연하게 걱정만 됐었는데, 실제로 단수가 되니 일상생활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며 "특히 씻는 것과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게 가장 불편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단일 수원 구조의 취약성과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오봉저수지의 87%를 의존하는 체계와 구조적 문제가 가뭄에

더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태백산맥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구름이 막히고, 폭염이 겹쳐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가뭄을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현실로 진단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지면서 1980년대 이후 가뭄 발생 지역이 3배로 늘어났다. 한반도 역시 피해 갈 수 없었다. 발생 빈도가 41%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APEC기후센터 분석에 따르면 현재 탄소 배출량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극심한 가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봄, 가을철 가뭄이 예측되며, 고탄소 시나리오에선 극심한 가뭄 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 가뭄 사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일반 시민들의 가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강릉 가뭄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다. 우리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제한적 급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하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케데헌' 글로벌 정복, 국내 극장가엔 日 애니의 역습?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 배경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하 케데헌)가 케이팝과 한국 신화, 뮤지컬의 독창적 조합으로 외국인들을 매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41개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고, 대표곡 'Golden'은 빌보드 글로벌 200 1위까지 올랐다.

케데헌은 아이돌로 활동하며 악귀를 처치하는 퇴마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와 악역 '사자보이즈'는 실제 케이팝 그룹에서 영감을 받았고, 도깨비나 저승사자 같은 전통 소재와 (호좌도)의 호랑이와 까치를 재해석해 한국 신화를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전 세계가 Golden을 흥얼거리는 사이, 국내 극장가엔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이하 귀칼) 돌풍이 불고 있다. 귀칼은 가족을 잃은 소년 이혈귀가 된 여동생과 함께 인간을 위협하는 혈귀에 맞서 싸우는 성장형 액션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8월 22일 영화 '무한정편'이 한국에서 개봉했고, 개봉 10일 차인 31일에 300만 관객을 넘어서는 등 전작 기록을 넘어서는 흥행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지브리류의 역사 '모노노케 히메' 리마스터와 전 세계 누적 판매 3천만 부를 기록한 '체인소맨'이 첫 극장판을 선보이는 등 일본 작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반면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120만 관객을 모았지만, 대중적 파급력은 미미하다.

자연스레 한국 일상은 일본 문화가 스며들었다. 예전에는 애니메

이션 소비라고 하면 만화책, 극장판 등의 소비가 전부였다. 반면 지금은 국내 코스프레가 찾아지고 카페, 의류 브랜드 등 협업 제품이 등장하며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Z세대 소비 팬덤 문화가 형성됐다. 조성준(미용225) 학생은 "애니메이션 굶즈를 소비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애니를 좋아하고, 어떤 캐릭터에 공감하는 사람 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정체성 표현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문화 교류'로 보느냐, 아님 '문화 침투'로 보느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학생은 이 현상을 '문화 교류'라고 답했다.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국식 소비 방식, 또 한국 창작자들(성우, 번역가 등)의 해석과 결합하며 새로운 문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박서진(미용225) 학생은 "문화 침투"라 답했는데, "최근 광복절 즈음 귀칼 시구 행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보기 결심했다. 이것은 한국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문화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극장가엔 일본 애니메이션이 깊이 뿌리 잡고 있지만, 반대로

'케데헌'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대중문화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타 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문화 교류'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두 사례는 문화가 국경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수용해야 하는지 되짚게 하고, 올바른 자세와 공존의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오연우 수습기자  
(pink3728@skuniv.ac.kr)



▲ 출처 : 공식인스타

수험생들은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는 낭만을 꿈꾸고 한다. 예쁜 캠퍼스 건물을 거닐며 수업을 듣는 모습은 청춘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과거 입시 전문가들은 한 방송에서 이런 조언을 했다. “만약 아이가 대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부모님과 함께 원하는 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하라.”

이렇듯 대학 건물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입결의 대학에 동시에 합격할 경우, 캠퍼스 미관이나 분위기가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학 캠퍼스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이다. 예쁜 캠퍼스를 보며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캠퍼스의 기준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먼저 떠올린다. 반면 경사가 높은 캠퍼스를 꼽는 경우도 있다. 높은 경사의 캠퍼스는 보기만 해도 숨이 차오르지만, 그런 경사진 캠퍼스만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

들도 분명 있다. 기나긴 경사를 오르며 캠퍼스 곳곳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감성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은 낙엽, 단풍 등 고즈넉한 캠퍼스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계절이다. 대학의 역사적인 흔적을 장식하거나 가을 색으로 물들인 캠퍼스 모

습을 찾아볼 수 있다. 기자들은 서경대, 경희대, 가천대, 서울시립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투어를 통해 캠퍼스마다 지닌 색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부터 4개 대학의 캠퍼스를 자세히 소개하겠다.



고지대에 위치해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경대학교도 '수려한 캠퍼스' 하면 빼놓을 수 없다. 드라마 <펜트하우스>나 <라이프>, <이태원 클라쓰> 등과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와 'ITZY', '블라썸' 등의 뮤직비디오, '아이브' 안유진의 릴스 등도 우리대학에서 촬영했다.

고지대에 있는 만큼 하늘과 금방이라도 맞닿을 것 같은데, 하늘의 푸르름을 그대로 땅에 옮겨놓은 소나무 덕에 교정은 한층 더 생기가 돈다. 더운 여름에는 정문에서부터 교정 중심으로 올라오는 길목마다 있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폭포와 분수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유담관 앞 분수대와 기동 건축물은 졸업식마다 졸업 사진을 찍는 학우들로 붐빈다. 기동은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 중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코린트 양식'과 유사하게 건축됐다. 기동머리에 아칸서스 잎사귀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것이 그 특징으로, 일련의 기동들이 줄지어 특색 공간을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인 '페리스타일'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동 건축물에서도 느낄 수 있듯 우리대학은 특히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눈에 띈다. 유담관과 한림관은 건물

자체가 둥글며, 창문은 직각으로 구성돼 있어 건물 자체의 곡선과 세부적인 직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직선인 많은 건물인 대일관·북악관·본관·은주관·한림관 입구 앞에는 아치형의 외곽 구조가 조형돼 있는데, 건물마다 있는 반원 모양의 창문들 또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건물에 부드러움을 더해준다.

유리와 돌 같은 건축 재료의 조화도 인상적이다. 문예관과 유담관, 한림관은 건물 외벽 자체가 유리로 돼 있는데, 금속 패널과 대형 유리창으로 이뤄진 일명 '커튼월' 기법이 사용됐다. 건물 중간층에는 돌로 만든 화단으로 이뤄진 테라스 정원이 있어 건물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현대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과는 대조적으로 고전의미를 간직한 건물도 있다. 바로 본관이다.

본관 정면에 길게 늘어난 긴 기동들은 고대 그리스-로마 신전에서 볼 수 있는 '포르티코' 형태를 이루고 있다. 포르티코는 건물 입구 앞에 기동으로 받친 지붕이 있는 현관이나 복도를 의미한다. 대리석이나 석회암의 느낌을 살린 밝고 단단한 석재를 사용해 고전 건축의 웅장함과 안정감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떠



오르게 한다.

모든 건물이 다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물은 바로 헤인관이다. 헤인관은 기준에 있던 건물 위에 2층가량을 증축했는데, 증축된 층의 외관이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것과 알록달록한 색감, 전원 버튼 장식이 그 특징이다. 건물 외벽에는 담쟁이덩굴이 덮여 있는데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드는 덩굴은 장관을 이룬다. 바로 그 모습 덕에 기자는 가을의 서경대 하면 제일 먼저 헤인관이 생각난다.

이처럼 멀리 가지 않고도 가장 가까이서 가을의 아름다움과 건축의미를 느낄 수 있는 서경대 캠퍼스. 이번 가을은 캠퍼스 이곳저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건 어떨까?

경희대학교는 1911년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으로 개교한 우리나라의 종합 대학이다. 경희대하면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떠오른다. 이번 기획엔 단순한 캠퍼스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 건축물에 좀 더 깊게 들어가자 한다.

본관은 경희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공간이며, 근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 유산으로 꼽힌다.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에 선정됐을 만큼, 가치를 증명받았다. 1953년 우리의 기술로 착공해 1956년 완성했다. 이후 1973년 교세가 확장되면서 본관 역시 증축 공사를 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본관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굉장히 유사한데, 두 건물 모두 고대 그리스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본관 옥상의 삼각형 벽면에는 다양한 군상을 표현한 부조상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뤄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 나갈 때 문화세계가 실현된다는 경희대의 이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한다. 평화의 전당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고딕양식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생 미셸 성당을 모티브로 만든 건축물로, 다양한 행사

를 개최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다. 1978년에 시공을 시작했지만, 1999년이 돼서야 완공될 수 있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안기부 대공본실 보안을 이유로 첨탑의 높이를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낮추게 되면 고딕 스타일을 잃기 때문에 공사를 무기한 중지했다. 1995년에 재개해 완성했다. 중앙 첨탑 양쪽에 솟은 높은 탑들이 웅장함을 자아낸다. 또, 화려한 장미장과 색유리창을 통해 포인트를 주고 있다.

**[재학생 인터뷰] - A 씨, 22세**  
Q. 가을 캠퍼스를 거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나 풍경은 어디였나?  
A. 단풍이 고즈넉하게 내려앉은 사색의 광장은 한층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그 길을 걸으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나에게 사색의 광장은 계절마다 다른 색을 입고, 늘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경희대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Q. 본인에게 캠퍼스란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A. 나에게 경희대학교는 단순히 공

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만남의 장이었다. 특히 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던 경험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겸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생회 일원들과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협력하며 배운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기자는 전에 이곳을 지인의 학위수여식 참여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는 막연하게 아름다웠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엔 캠퍼스의 역사를 듣고 보니 건물에 정말 다양한 구성요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숨 쉬는 '풍경'과 유럽풍의 웅장한 캠퍼스를 마주하다

☆ 경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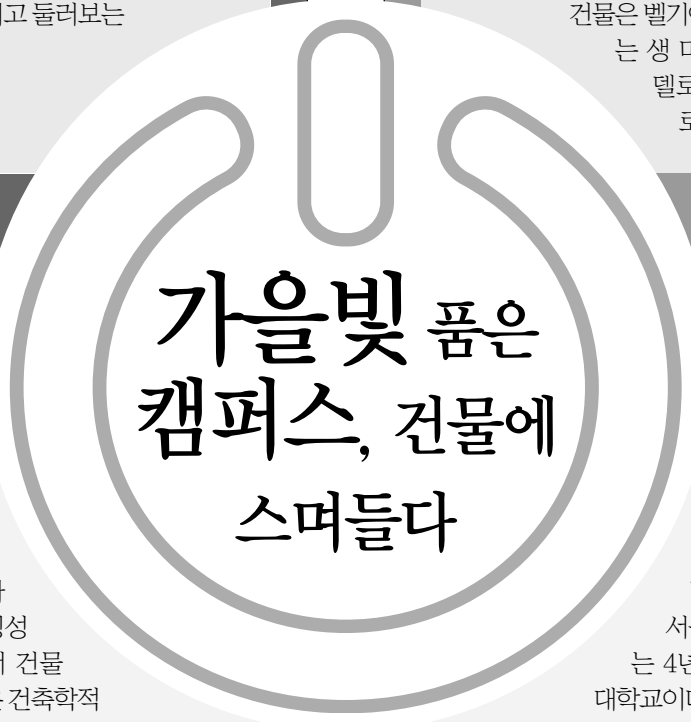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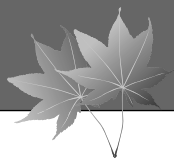
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만남의 장이었다.

기자는 전에 이곳을 지인의 학위수여식 참여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는 막연하게 아름다웠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엔 캠퍼스의 역사를 듣고 보니 건물에 정말 다양한 구성요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숨 쉬는 '풍경'과 유럽풍의 웅장한 캠퍼스를 마주하다

☆ 경희대학교

자연물과 직선, 유려한 곡선의 조화 ☆ 서경대학교



반면, 언덕 위에 있는 캠퍼스 안쪽은 공과대학, 신학협력관 등 비교적 노후화된 건물이 있어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기자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건물은 비전타워였다. 가천대학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건물로, 크게 A, B동으로 나뉜다. 또한, 강의실만 있는 건물이 아니다. 스타벅스, 웨딩홀, 올리브영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있는 신세대 건물인 점이 눈에 띈다.

비전타워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될 정도로, 건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비전타워는 가천대 이길여 총장이 전문대학이었던 경원대에서 4년제 종합대학 가천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전략으로도 알려져 있다. 비전타워를 설립해 가천대를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시키려는 혁신이었다.

비전타워 못지않게 가천관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 가천관은 비전타워에 이어 가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다. 교내에서 가장 큰 건물로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인문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가천관의 특징은 바람개비 모형의 건물 구조다. 가천대는 입시전형 이름도 바람개비일 정도로 바람개비를 학

교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바람개비의 상징성을 형상화해서 건물에 배치한 점은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지범(23) 학생은 “가천관, 비전타워는 가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다. 캠퍼스를 대표하는 건물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천관은 건물 정면의 점진적 입체 모양의 형태로 이뤄져 있어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휴식 공간과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학업이 지칠 때, 큰 도움을 주고, 가천관의 외관을 바라보며 앞 계단에 앉아 예쁜 캠퍼스를 구경하곤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비전타워는 지하철역과 캠퍼스로 직접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건물이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있어 강의실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에 다양한 상점들로 학생들의 공간을 책임겨주는 공간이다. 이렇듯 가천대학교는 아름답고 편리성이 뛰어난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가천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가천대 전기공

# 제로의 달콤한 함정... '0' 너머의 진짜 이야기

한때 다이어터들의 전유물이었던 '제로 식품'이 이제는 젊은 세대의 일상 속 '기본값'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 903억 원 수준이던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2021년 2,189억 원으로 5년 만에 2.4배 이상 성장했다.

이렇듯 '제로 식품'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거나, 칼로리를 크게 줄인 제품을 뜻한다. 건강을 생각하

는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과연 이 '제로'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소비하는지 생각해 볼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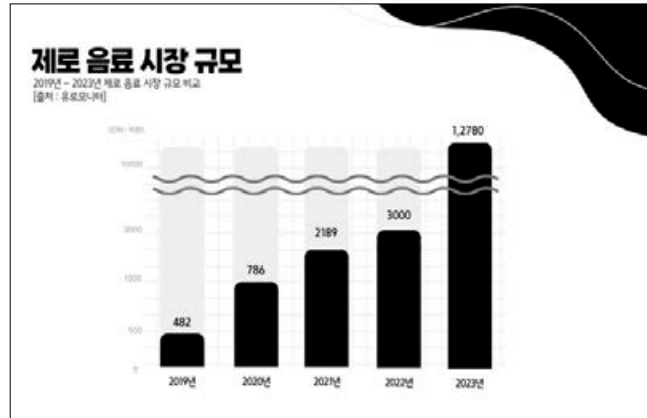
제로 식품의 폭발적인 성장은 몇 가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활동량 감소와 체중 증가를 불러왔고, 이는 저칼로리 제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이때 '다이어트'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어감

대신, '맛있으면서도 건강하다'라는 '헬시 플래저' 유행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제로 음료 시장이 활성화됐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음료가 시작이었을까? 그 시초는 2006년 코카콜라 제로의 등장이었다. 처음 2006년도 코카콜라가 제로 음료를 냈을 때만 해도 누가 저걸 먹냐는 반응이 흔했지만, 코카콜라 제로가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던 중 코로나19를 계기로 헬시 플래저 유행

이 본격화되자 펄시, 칠성사이다 등 경쟁사들도 앞 다퉈 제로 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맛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제로 음료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일반 음료와 흡사한 맛을 구현하며, 더 이상 '낯선 제품'이 아니라 모두가 선택하는 기본 음료가 됐다. 이렇게 '제로 식품'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디저트와 주류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빨수록 인기가 많아진다? 제로 식품의 역사와 현재



제로 콜라, 제로 아이스티, 제로 초콜릿... 제로 식품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에 당연하게 녹아든 요즘은 어디를 가든 제로 식품을 마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로 식품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코로나19 이후 전성기를 맞이한 제로 식품의 역사는 꽤 짙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로 식품은 1904년 러시아 사업가 하이먼 커쉬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다. 영양소를 운영하는 하이먼 커쉬는 당뇨와 심혈관 환자들을 위해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은 음료 만들기를 시도했다. 그 결과 하이먼 커쉬는 '노 칼로리 진저에일'이라는 탄산음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이는 대체 인공 감미료인 '사이클라메이트'가 암 유발 물질로 오인당해 사용

70~80년대에 큰 인기를 누렸다. 57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탭은 2020년 단종됐다. 다만 설탕 대신 대체 인공 감미료를 첨가한 만큼 기존 탄산음료와는 맛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기존 식품의 맛과 제로를 동시에 유지한 최초의 식품은 무엇일까? 이는 2005년 코카콜라에서 출시한 코카콜라 제로이다. 설탕을 제외하고 대체 인공 감미료로도 오리지널 콜라의 맛을 그대로 유지했다. 코카콜라 제로는 기존 음료와 맛이 다르다는 이유로 호불호가 갈렸던 제로 음료에 대한 편견을 깨부렸다. '제로' 파와 '오리지널' 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코카콜라 제로는 제로 식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제로 식품의 역사는 길지만, 그 시간만큼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제로 식품의 열풍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제로 식품은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의 유행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헬시 플래저는 건강(Healthy)과 기쁨(Pleasure)의 합성어로 즐겁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창기 제로 식품 산업 대다수는 제로 음료가 차지했지만, 현재는 주류, 과자 속취 해소제, 소스·젠티 등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떡볶이 소스의 당분을 낮춘 제로 떡볶도 등장하며 제로 식품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였다.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786억 원에서 2021년 2,189억 원으로 약 3배 정도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도에는 1조를 훌쩍 넘으며 제로 식품의 저력을 보였다. 참고로 유로모니터, 헬시 플래저의 유행 이후 변화한 소비자 건강 인식 변화 덕분에 '제로 식품'은 단순 유행을 넘어서 새로운 식품 산업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손님들의 구매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부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알바생들의 발언은 각자 다른 매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점별 특성에 따른 소비 패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준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정효주(23) 씨는 "손님들이 제로 음료를 할인하면 구매하고, 할인하지 않으면 일반 음료를 사 가는 것 같다"며, 본인은 "평소 제로 음료만 마신다. 일반 제품과 맛 차이를 크게 못 느끼고,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점 아르바이트생 한승훈(23) 씨도 "손님 열 명 중 네댓 명은 제로 음료를 고른다"며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많지만, 발주는 일반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여름철에는 마실 것을 사가는 손님이 많다 보니, 1+1 행사 덕분에 제로 음료가 금방 동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비슷한 흐름이

## 제로, 현장에서 확인한 선택 이유와 인기 비결

나타났다. 버거킹에서 근무하는 한세라(22) 씨는 "제로 콜라 주문이 일반 콜라보다 더 많다 보니, 매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제로 콜라를 일반 콜라보다 더 많이 들여놓게 된다"며 "나이가 있는 고객도 찾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찾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왔다. 김동현(22) 씨는 "제로 음료는 부담이 적고, 1+1이나 2+1 행사도 많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다"며 "같은 음료라도 제로라고 표시되면 손이 더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22세 소비자는 "제로 음료는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주로 선택하지만, 요즘은 제로 음료가 너무 많아서 그맛에 질려 오히려 일반 음료가 당길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23세 소비자는 "액상과당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워낙 좋아해서 자주 마셨다. 그런데 요즘 제로 음료가 많다 보니, 내가 마시는 일반 음료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 그래서 이제는 제로 음료도 줄이고, 생수나 보리차를 선택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30대 소비자 김나래 씨는 건강 습관과 연결해 제로 음료를 선택한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빵을 살 때도 저당 빵을 주로 사고, 제로 음료가 있으면 선택한다"며 "요즘은 제로 섭취도 줄이려고 노력한다. 카페에



서도 우유를 저지방이나 오트, 두유로 바꿔 마신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튜브에서도 '제로가 더 안 좋다', '진짜 제로가 아니다' 같은 여러 영상을 봐왔지만, 사실 저도 제로가 정말 '제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일반 음료보다는 조금이라도 몸에 덜 나쁘다고 생각해서 마신다. 플라세보(기대와 믿음에 의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효과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음료는 입에 남는 맛이 거의 없지만, 제로는 뭔가 대체당 맛이 살짝 남는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흐름은 뚜렷했다. 제로 제품은 다이어트나 대체제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보편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맛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존재하며, 제로 제품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일반 음료를 찾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로'라는 이름값,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로 식품은 정말 '제로'일까? 많은 소비자가 제로 식품이 '칼로리가 전혀 없는' 완벽한 대체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로 식품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대체당'을 사용한다. 대체당은 크게 인공 감미료와 천연 감미료로 나뉘며, 이들은 설탕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 제로 식품의 핵심 성분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이 있다. 대부분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로, 극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어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깝다.

자연에서 유래한 알룰로스나 에리트ρί톨 같은 천연 감미료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대체당에도 양면성은 존재한다. 먼저, 소화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적으로는 당과 알코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당알코올이란 이름이 붙은 에리트ρί톨이나 자일리톨을 과다 섭취하면 복부 팽만, 설사, 복통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는 체내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는 당알코올을 계열의 특성 때문이다. WHO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장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복부 팽만, 설사, 복통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과민 대장 증후군 환자처럼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감미료가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유해균의 성장을 촉진해 대사 질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제로 식품에 '숨겨진 칼로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면 100g(또는 100ml)당 4kcal 미만일 경우 '제로 칼로리'로 표기할 수 있어 적은 칼로리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제로 슈거'와 '제로 칼로리'는 다른 개념으로, 두 음료 모두 '제로 음료'라 불리기 때문에 소비자는 반드시 실제 함유 성분과 열량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로'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방심이다. 많은 사람이 제로 음료를 '칼로리가 없으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물 대신 마시거나, 다른 고칼로리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식욕 조절에 실패하거나, 제로 음료에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로 식품은 설탕 섭취를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다이어트의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그렇기에 제로 음료는 기존 고당분 음료를 대체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현명하게 소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이다. 소비자들은 흔히 '0칼로리'라는 표시만 보고 구매하지만, 나트륨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 또한 감미료마다 부작용이 다르기에 자신의 건강 상태(혈압, 혈당, 소화 기능 등)에 맞춰 선택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제로 식품은 받침처럼 섭취하기보다 간식처럼 제한적으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은 제로 식품이 아니라, 주식은 물과 자연식품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다. 갈증 해소는 물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제로 음료는 물보다 맛있지만, 각종 첨가물로 물만큼 수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다. 더군다나 탄산이 있는 음료로 수분 보충을 대신한다면 탄산의 산성으로 인해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단맛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과일,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같은 자연식품을 섭취해 미각을 단맛에 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단맛 훈련을 통해 민감해진 혀는 적은 단맛에서 큰 만족감을 느낀다.

제로 식품은 적절히 활용하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선택지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설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태도는 위험하다. 소비자가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또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제로'가 괜찮다

가 됐지만, 그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소비가 가능하다. 결국 제로 식품의 가치는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이제 질문을 던져본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제로 식품을 그냥 먹었는가? 아니면 알고 먹었는가?

## 제로가 기본값이 된 사회... 앞으로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

라는 단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앞으로 소비자는 비판적인 소비 태도를 지녀야 한다. 기업들은 '제로'라는 마케팅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지만, 소비자는 광고 문구가 아닌 성분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소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신이 제로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참고해 제작한 하단의 진단표를 활용해 보자. 만약 세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위에 기사를 참고해 식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하루에 제로 음료를 두 번 이상 마신다.
2. 저나 젤리 아이스크림 등 제로 표시 제품을 2개 이상 섭취한다.
3. '제로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양 조절을 하지 않고 섭취한다.
4. 섭취 후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 경험이 있다.
5. 제로 식품을 먹은 후 오히려 단맛이 더 당겨 다른 단 음식을 먹는다.
6. 어떤 감미료가 첨가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7. 0칼로리만 보고 다른 영양 성분은 확인하지 않는다.
8. 제로 제품을 매일 빠짐없이 섭취한다.
9. 물 대신 주로 제로 음료로 갈증을 해소한다.
10. 제로 제품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 기고칼럼

## 인문학자가 경험하고 있는 AI(인공지능)

이복규 (영예교수/국문학)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끄적끄적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프카 소설 '변신'의 첫 문장이다. 하루 만에 다른 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상상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요즘 AI기술의 발전이 그런 듯하다. 시시각각으로 진화해 자꾸만 새로운 앱이 등장하고 있다. 적응 못 하면 벌레 취급당할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학술대회에서 만난 카리스트 출신 인공지능 전공 교수가 하는 말을 들었다. “한문을 자동으로 번역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현대의 진화 속도로 보아, 곧 만족할 수준이 될 겁니다.”

고전문학 연구자로서, 귀가 번역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설마 했

다. 영어 등 외국어 번역 수준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은 체감하고 있었으나, 한문만은 그럴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아니었다. ‘옛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원고를 쓰면서, 어느 날 우연히 AI한테 시켜 보았다. 한문 텍스트를 프롬프트에 넣은 후, “한국어로 번역해 줘”라고 명령하자, 2초도 안 걸려 급세 번역하는 게 아닌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인공지능 전공 교수의 예언은 적중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날이 진화해 마침내, 여기 이른 것이리라. 살펴보니 99% 정도 정확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날이 진화해 마침내, 여기 이른 것이리라. 살펴보니 99% 정도 정확했다. 몇 군데만 수정하면 그만이었다. 착한 괴물이었다.

그 순간 내 뇌리에 떠오른 것은? ‘한문 번역을 직업으로 삼지 않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이었다. 어지간한 수준의 한문 번역은 인공지능이 무료로 해결해 주는 세상에서

한문 번역자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라. 직업을 두고 회비가 교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변화의 추이를 주시해야만 하겠다.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태국 치앙마이에 봉사 갔을 때 파파고 번역 기능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실감했다. ‘대화’ 기능 선택 후, 태국 어린이와 자유롭게 대화했다. 나는 우리말로, 어린이는 태국어로 말하면 즉시 상대방의 언어로 바뀌어 문자로도 뜨고 소리로도 들켰다. 굳이 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 알았다. 강사가 매주 새로운 앱을 소개하고 있다. 눈을 뜨면 더 진화한 앱이 나오라며 즐겁게 소개한다. 그림 그리는 AI도 처음에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쓰라고 하더니, 지난 주에는 ‘나노 바나나’와 ‘미드저니’가 새로 나왔으며 바꾸란다. 예

이 경험에 자극을 받아, 강박노동자복지관에서 개설한 ‘AI인문클래스’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AI 기초를 배우는 시간이다. 자신이 창작한 동화에 자신이 AI로 삽화를 넣어, 저작권료의 100%를 혼자 챙기고 있다는 강사의 생생한 강의다. 동화 창작과 삽화는 물론 관련 굿즈(상품)도 만들어서 수입이 짝잡하다니, 우리 대학생들에게 블루오션이겠구나 싶다. 사양산업이 속출하는 기존의 직업만 믿지 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강사가 매주 새로운 앱을 소개하고 있다. 눈을 뜨면 더 진화한 앱이 나오라며 즐겁게 소개한다. 그림 그리는 AI도 처음에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쓰라고 하더니, 지난 주에는 ‘나노 바나나’와 ‘미드저니’가 새로 나왔으며 바꾸란다. 예

전에는 삽화 주인공 얼굴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보정하느라 불편했는데, 이 새로운 앱에 와서 말끔히 해소됐다며 싱글벙글이다. 한번 해보니 정말 그렇다. 그림동화책 낼 때 딱이었다. 청년과 대학생들이 이용하면, 사양산업이 속출하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인문학자로서, AI 수업을 듣고 활용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 AI가 아무리 풍부한 데이터를 지니고 있더라도, 명령어를 수준 있고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제대로 된 출력물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인문학적 소양 및 글쓰기(말하기) 역량은 여전히 필요하다. 주인이 똑똑해야 머슴을 제대로 부른다. 인간과 AI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 기자의 눈 |

## 옛것에서 찾는 나만의 정체성 : 레트로가 주는 새로운 경험

최신 기술 기기와 밋없는 유행이 지배하는 이 시대, 필자는 과거로 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바이닐 레코드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동모와 회현역 근처의 활기 넘치는 LP 시장을 탐험하게 만들었다. 쌓여 있는 낡은 앨범들을 뒤지며,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발견을 경험한다. 각 LP는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촉각적인 흥, 커버 아트, 살짝 바랜 라벨까지. 오늘날의 빠른 소비문화 속 흔히 잃어버리곤 하는 그 자질들에 대해, 옛 공기와 먼지들은 인내와 집중을 요구했던 시대로 향하는 초대장과 같았다.

레트로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소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필자는 빈티지 가구도 수집한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깔끔한 라인은 부인할 수 없는 미적 매력을 지녔지만, 필자를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그 안에 깃든 철학이었다. 대량 생산된 현대 가구와 달리, 오래된 가구는 장인의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적 맥락, 그리고 내구성과 독창성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캐비닛의 미묘한 비대칭, 낡은 의자의 모서리, 그리고 현대 트랜드의 무미건조한 완벽함에 굴하지 않는 디자인 선택에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러한 가구를 소유한다는 것은 과

거의 사고와 창의성의 파편을 간직하는 것과 같다.

필자의 소비 이해는 이러한 레트로 물건들을 접하면서 점차 바뀌었다. 더 이상 단순히 향수를 느끼거나 전시를 위해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LP를 찾고, 그 질감과 소리를 음미하고, 의자의 섬세한 접합을 감상하는 것은 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됐다. 밋없는 새로움보다는 깊이, 역사, 그리고 개성을 우선시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본질적으로 레트로는 정체성을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필자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트렌드가 더 폭넓은 세대에게 공감을 얻는 방식이다. 필자를 포함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디지털 이전이나 산업화 이전 시대의 물건들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다. 단순히 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중심축으로서 말이다. 레트로는 더 느리고, 더 계획적인 삶의 방식과 연결되고, 의미와 영속성을 지닌 유물들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물건들을 수집하고, 큐레이팅(curation)하고, 돌보는 행위는 개인적인 서사의 연장선이 된다.

궁극적으로 레트로를 수용하는

것은 현재에 저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레코드판, 빈티지 의자, 빛 바랜 포스터 등 각각의 물건은 더 넓은 정체성의 초상을 그려내는 붓놀림이다. 옛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은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레트로 소비는 단순한 취미나 미적 취향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길이 된다.

윤정현 기자  
(stark1017@skuniv.ac.kr)

| 기자의 눈 |

## 내 심장의 색깔은 '말차'

몇 해 전, 국내 블렌딩 티 전문 기업인 '히터더(HIT THE TEA)'에서 유기농 말차 식음료 브랜드 '슈퍼말차(SUPER MATCHA)'를 론칭했다.

사실 커피 문화가 식음료 시장을 장악한 시점부터 차는 젊은 세대에게 비주류 문화로 여겨졌다. 차잎을 우리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짙은맛, 그리고 '전통차'라는 예스러운 이미지가 차 문화의 퇴색을 가속했다.

그러나 슈퍼말차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말차를 '힙'한 아이템으로 재탄생시켰다. 먼저 향광빛이 도는 그런 패키징과 이와 대비되는 블랙로고 디자인으로 단순하지만 경쾌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말차라는 아

이템을 보다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했다. 2022년 GS편의점과의 협업으로 선보인 '슈퍼말차초코콘', '슈퍼말차하임'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전략 덕에 기업과 말차 식음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젊고 건강한 이미지로 각인됐다. 슈퍼말차는 매년 약 150%의 성장세를 보이며 F&B 업계에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말차의 인기와 수요는 이 전부터 조금씩 늘는 추세였다. 하지만 대중의 소비 심리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 등장한 '말차코어(matcha-core)'라는 키워드 때문이다.

말차코어는 말차와 '코어(core)'가 합쳐진 신조어로, 미국 Z세대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말차가 지난 건강 효능이 헬스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와 맞아떨어진 점을 인기 요인으로 본다. 또한 유기농·비건 등 최신 소비 흐름과도 부합하며, SNS에 최적화된 말차 특유의 색은 MZ세대의 시선을 끌었다. 실제로 해시태그와 함께 말차라떼 사진을 공유하거나, 일부러 음료를 바닥에 쏟는 '말차 스피ل(matcha spill)' 챌린지의 유행으로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에 더해 젊은 세대는 말차코어라는 키워드 속 말차를 단순 음료의 범주에서만 해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자연을 담은 건강하고 감각

적인 색채, 여유로운 태도를 추구하는 복합적 라이프스타일 코드로 받아들이고 있다.

힐라·킨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말차 컬러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또한 차선으로 거품을 내는 '격렬'과 영적 마차의 인기에 한몫한다. 차 가루를 섞으며 호흡을 가다듬는 명상적 행위에 소비자들은 매력을 느꼈다.

말차코어는 단순한 '유행'에 그칠까, 아니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이를 '탕후루처럼 반짝했다 사라질 트렌드'라 평한다. 그러나 말차코어는 식품을 넘어 패션·뷰티까지 확장할 수 있

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2023년 세계 말차 시장 규모는 약 43억 달러(6조 원)에 달했으며, 2030년에는 74억 달러(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 더구루).

따라서 말차코어는 단순히 '말차 음료'를 즐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연과 건강, 차분하고 감각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가치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언젠가 초록색을 두고 '말차색'이라 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김경민 객원기자  
(anna2467@skuniv.ac.kr)

| 수습의 눈 |

## 다 같이 사는 사회, 문화가 함께 하는 사회, 화합하는 우리

지난 8월,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힌 이슈가 있었다. 독일과 한국이 중 국적을 가진 축구선수 엔스 카스트로프(이하 엔스)가 최종적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선택한 것이었다. 엔스는 왜 낯선 한국을 택했을까?

엔스는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게다가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엔스도 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엔스는 평소 가슴에 어머니의 이름을 타투로 새길 정도로 어머니에 애착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한국 대표팀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조국 한국을 위해 뛰고 싶은 강한 열망이었다.

초기 다문화협회는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으며 엔스의 대표팀 발탁에 회의적인 시

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서류를 준비하는 등 혼자서 행정 문제를 해결했다. 엔스의 이러한 노력에 흥분한 축구 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도 태도를 바꿔 9월 A매치에 엔스를 발탁했다.

여자축구 대표팀의 케이시 유진 페어(이하 케이시) 선수도 비슷한 사례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케이시는 2007년생의 축구 유망주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미국과 한국 축구계가 모두 주목했다. 미국은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할 정도로 케이시에 정성을 쏟았다. 반면 한국은 케이시의 발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녀는 한국 대표팀을 선택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케이시의 꿈은 월드컵 출전이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한국 대표팀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엔스와 케이시의 대표팀 합류 과정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물론 한국 사회도 과거에 비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다문화 수용을 위한 정책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의 '스즈키 자이언' 선수수는 일본·가나·미국 삼중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지만, 한국은 합류했을 때는 한국이 아닌 독일에 합류했을 것이다. 또한, 케이시의 꿈이 월드컵 출전이 아니었다면 그녀도 한국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워밍 정신을 강조해왔다. 혼혈 민족이 어떤 조직에 들어왔을 때, 문화와 언어 차이를 인정해 팀워크를 높일 수 있다는 해당 국가의 언어, 복지 등도 함께 안내한다. 이는 단순한 선수 확보를 넘어 문화적 통합

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은 군 복무라는 특수한 의무로 인해 다중 국적자가 선택한 국적을 택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행정적 지원과 복지 정책 등에서 수준 높은 방안을 제시한다면 한국을 택하는 혼혈인이 많아질 것이다. 엔스는 오래전부터 한국 대표팀 합류 의지를 내비쳤었다. 하지만 한국은 졸속 행정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만약 엔스의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한국이 아닌 독일에 합류했을 것이다. 또한, 케이시의 꿈이 월드컵 출전이 아니었다면 그녀도 한국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워밍 정신을 강조해왔다. 혼혈 민족이 어떤 조직에 들어왔을 때, 문화와 언어 차이를 인정해 팀워크를 높일 수 있다는 해당 국가의 언어, 복지 등도 함께 안내한다. 이는 단순한 선수 확보를 넘어 문화적 통합

조직에 들어왔을 때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워밍의 자세다. 이는 스포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용돼야 할 가치다.

엔스와 케이시의 한국 대표팀 선택은 박수받아 마땅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대표팀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아직 다문화 수용에 미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문화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엔스와 케이시의 사례는 한국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만/파/식/적

## 아직 깨어있는 청년들은 어딘가에 있다

지난 9월 19일(금),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대통령실이 주최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2030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청년 세대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안정성도 없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모두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 주거, 복지, 지역 격차, 성별 갈등, 은둔 청년, 기후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1부에서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청년 목소리 김연서 씨와 (9업타운 대표 김성훈 씨가 기술 기반 현장직의 진로 탐색 기회 부족과 기존의 딱딱하고 접근이 어려운 소통 창구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2부 주제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으로, 주거복지센터 김지선 사회복지사와 서울시장년정책조정위원회 박유민 위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들은 전세 사기, 주거 환경 등의 문제점과 공공임대 주택이나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서 두레만사람들 반장 정지훈 씨가 지역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며 지역 청년 이탈의 문제를 말했다.

3부는 자유 의제 토론으로, 별도 발제 없이 진행됐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과 지역 인재 유치 방법 △대통령실 인턴십을 통한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보호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생활 개선 △은둔고립 청년들을 구제하고 방지할 정책 수립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행사가 끝난 후 계단을 오르며 내용을 곱씹을수록 그리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청년의 정치참여가 현저히 낮아졌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필자는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지 않다. 당장 직접적인 일이라도 정치나 정책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거기에 쏟을 관심과 힘이 없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이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기에도 벅čas기 때문이다. 한 대학신문의 편집장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기에 이 자리가, 이 기회가 더없이 소중하다.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있으면 다른 기자들의 아이템을 판단해야 하고, 기사를 사실대로 치우치지 않게 써 왔는지 또는 필자처럼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내 나름대로 치열한 공부를 하며 3년째 신문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젠가는 단순히 일을 해야 해서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을 넘어,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사설

## 학교폭력, 더 이상 대학 가기 힘들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입시는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점이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학 합격 문턱이 대폭 높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대학교육협회는 지난 2024년 5월, 수험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량평가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290개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을 입시에 적용하게 된다. 정성평가에는 71개교, 지원 자격 제한 및 부가적 처리에는 57개교, 혼합평가에는 236개교가 반영한다 [참고: 중앙일보].

이는 2023년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기반한 교육제도의 변화다. 또한, 2028년부터는 정시, 논술 등 어떠한 전형에 지원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된다.

지금까지의 입시제도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광범위하게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하면 학교폭력 기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2026학년도 입시부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다면 대학 합격의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번 입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1호(서면사과) 등 경미한 사항이어도 지원조차 불가능한 전형이 존재한다. 고려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 전형, 연세대학교 학생부교과 전형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대학의 경우, 징계 수준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감점이 없다. 4호와 5호는 10점, 6호와 7호는 20점, 8호는 30점, 9호는 50점의 감점을 반영한다.

지역대학들도 마찬가지다. 부경대와 계명대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동체 역량 부분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 더불어, 다수의 지방 국립대는 학교폭력 처분 정도에 따라 교과성적 총점의 2~20%를 감점한다.

학교폭력은 연예계와 정계 등 공인들의 과거 행적에 문제가 되면서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비롯해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 비판하는 콘텐츠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은 참치로 가득하다. 반면 가해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불균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교육계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성적이 최우선 기준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언행 문제로 인해 입시에서도 인성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사회가 눈감아주지 않는다. 대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평가받는 첫 번째 관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교육 혁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책

사상이 인간을 집어삼킬 때 - 코벨소 외젠 이오네스쿠



▲ 출처 : 코벨소

“이봐, 자네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있지 않잖아? 왜냐하면... 생각이 없잖아, 그럼 자네도 존재할 걸세.”

서 활동했으며 '부조리극의 선구자'라 평가받는다. 1930-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격변기, 파시즘과 나치즘 등 전체주의 이념이 확산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그는 인간의 비합리성과 집단적 맹목에 대한 문제의식을 작품에 담게 됐다.

그러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코벨소로 변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며 코벨소가 되어간다. 결국 마을은 코벨소 무리로 가득 차고, 끝까지 남은 인간은 주인공 베랑제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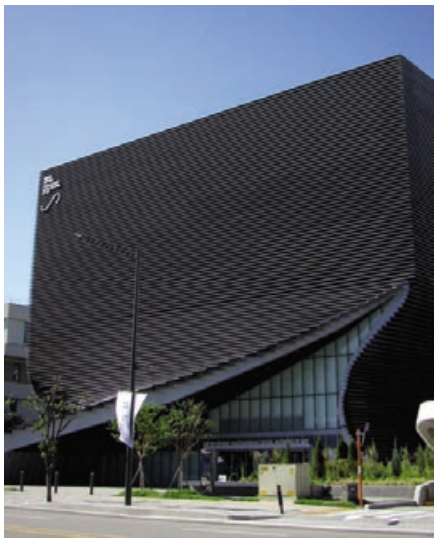
필자는 작가가 '언어'에 회의적이라고 느꼈다. '언어'가 더 이상 소통을 이어주는 매개가 아니라 사람들을 집단적 맹목으로 몰아가고,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코벨소라는 이미지 형상화를 통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폭력적 사상에 동조하는 현상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는 소수의 외로운 투쟁을 담았다. 이는 인간 본성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 현상 즉, 사람들의 '코벨소화'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허무를 관객에게 역동적으로 전달한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오늘의 장소

정겨운 동네의 감각적인 공간 -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창동은 그저 환승역으로 지나치던 곳이였다. 많은 이들은 창동이라 하면 정겨운 시장과 주공아파트 단지가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감각적인 사진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세마는 2025년 5월 29일 서울시립미술관의 신규 분관으로 개관했다. 우리나라 공립미술관 최초로 설립된 사진 매체 특화 미술관이다.

세마의 주요 공간은 1층 △로비 △포토 북카페, 2층 △1, 2전시실 △영상홀, 3층 △3, 4전시실, 4층 △포토 라이브러리 △1, 2교육실 △삼실 등이 있다.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7 · 관람비 : 무료 · 운영시간 : 매주 10:00~20:00, 월요일 휴관(주말 10:00~18:00, 동절기, 19:00, 하절기)

한편, 내부에 들어섰을 때 로비가 있었고, 왼편엔 카페포토세마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전시관을 둘러봤다. 다 둘러보니 2시간 정도 걸렸다. 필자가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사진을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닌 상세하게 잘 구성된 전시와 해설로 사진에 시대상 배경과 촬영 의도 등, 사진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길음역에서 다섯 정거장 15분 정도 걸리니 사진을 찍거나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교환할 때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오늘의 음악

긴 연휴 동안 무료함을 달래줄 음악

긴 추석 연휴가 찾아왔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향하고, 또 누군가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막막한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긴 대기시간. 이 순간엔 단순히 정체의 시간이 아닌, 어쩌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의 쉼표가 될 수도 있다.



▲ 출처 : 벅스

♪ 〈21세기의 어떤 날〉 - Lu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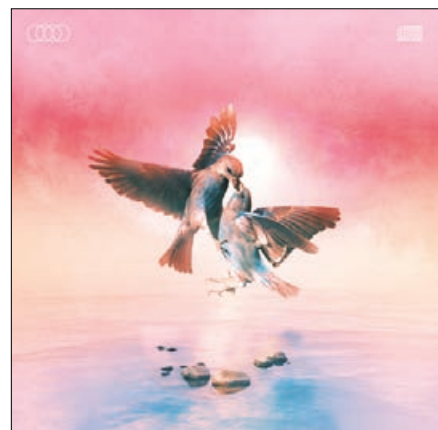
“날 기억할 수 있을까 숨 가쁜 오늘 시대는 흘러 달리고 있는데 찰칵 셔터를 누르면 모두 다 간직할 수 있기를 내 맘속 카메라 사랑 낭만 슬픔과 눈물 모두 흘러가겠지만 (oh, woo) 한 장 사진에 담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 출처 : 벅스

♪ 〈비틀비틀 짝짜꿍〉 - 한로로

“시간은 우릴 기다려 주지 않지 자신 있는 너의 걸음에 힘이 돼 주고픈 내 마음은 넌 이미 알고 있는지 사랑스러운 눈가에 맺힌 눈물 부끄러워 마요 (우우, 우우, 우) 얼룩진 베개 위로 가득한 한숨 언젠가 예쁜 꽃을 피울 거란 걸 난 알아”



▲ 출처 : 벅스

♪ 〈by your side〉 - 후디

“문을 열고 나와 고개를 들어보니 날 보는 태양이 왠지 부러워 널 만나러 가는 걸음걸이마다 네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어디에서 뭘 해도 우린 그 누구보다 Havin' a good time in the sunshine”

긴 이동시간 끝에 누군가 또는 새로운 여행지를 맞이하려 가는 길, 설렘이 가득하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오늘, '우린 그 누구보다 Havin' a good time in the sunshine',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오연우 수습기자 (pink3728@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빛, 소리, 그리고 공간이 하나 되는 순간 - 노노탁 NONOTAK



▲ 출처 : 세화미술관

작품 사이사이를 돌아다니고, 작품에 올라가 보며 작품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노노탁 NONOTAK》은 시각과 청각을 넘나드는 기존의 몰입형 전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간까지도 넘나들며 작품을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몰입형 전시이다.

전시를 기획한 노노탁 스튜디오는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듀오이다. 비주얼 아티스트 노에미 슈퍼와 건축을 전공한 빛 · 사운드 아티스트 타카미 카모토는 소리와 공간에 대한 독창적 접근

과 기하학적 드로잉에 집중해 몽환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공간을 그려낸다. 빛과 소리, 공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탄생한 작품은 감각적인 시각 경험을 만들어 내며,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노노탁 스튜디오의 작품은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한다. 전시는 책자에 적합한 초기작의 모습과 현재의 작품을 비교하며 관람함으로써 작품 관람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데이드림 V.6〉, 〈히든 세도 V.2〉, 〈네로우 V.2〉, 〈나르시스 V.4〉 그리고 〈아카이브 룸〉으로 구성됐다.

이 두 요소는 〈데이드림 V.6〉과 〈네로우 V.2〉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데이드림 V.6〉은 공간의 왜곡을 시각화한 작품이다. 단순한 직사각형 구조물이 반복 설치되어 있지만 빛과 조명을 통해 기하학적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작품을 만들어 낸다.

- 전시기간 : 2025.08.30(토)~2025.12.31(수) (매주 월요일, 추석 당일, 크리스마스 휴관)
· 전시장소 : 세화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3층)
· 관람시간 : 10:00 ~ 18:00
· 관람비용 : 대인 13,000원, 소인 9,000원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오늘의 영화

시각효과의 발전을 알린 기념비적 작품 - 트랜스포머 (2007)



▲ 출처 : TMDB

2007년, 기존의 변신 로봇 장면을 완전히 바꾼 영화가 등장했다. 이 영화의 변신 장면은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트랜스포머》는 오락 영화를 넘어 파격적인

시각효과를 보여준 기념비적 작품이다. 필자 역시 그 장면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고, 시리즈의 마니아가 됐다.

《트랜스포머》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작품으로, 원래 애니메이션 시리즈였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아동용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제작됐음에도 전 연령층을 사로잡으며 인기를 끌었다. '올스파크'라는 거대한 힘을 차지하기 위해 트랜스포머는 오토봇과 디셉티콘으로 나뉘어져 전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로 그들의 행성인 사이버트론은 폐허가 됐고, 올스파크는 지구로 떨어지게 된다.

고등학교생인 주인공 샘 윌윙기는 아버지에게 졸업 기념 선물로 중고차를 선물 받는다. 그런데 이 차는 다른 행성에서 온 변신로봇 생명체인 '오토봇 범블비'였다. 알고 보니 샘의 조상이 오래전 올스파크를 발견해 그의 안경에 위치가 새겨져 소유자인 샘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것이었다.

올스파크의 힘으로 지구를 지배하려는 악의 세력, 디셉티콘이 지구로 몰려오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메가트론은 지구의 파멸을 올스파크의 위치를 알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샘과 미군, 오토봇들이 힘을 합쳐 싸움을 준비한다.

이 작품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시각효과다. 자동차의 부품이 변형되고, 금속들이 이리저리 부딪치는 효과음까지 합쳐진 디테일 때문에 시각효과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이후 피서시 랩 시리즈, MCU의 헬크버스터 등 거대로봇을 구현한 작품은 많이 나왔지만 나온 시기가 2010년 이후인 걸 고려하면 트랜스포머의 시각효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설정 오류 및 줄거리에 구멍이 많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원작 기반인데, 민화와 영화 세계관의 설정이 잘 맞지 않는다. 단순히 즐기려는 관객이면 괜찮지만, 원작 팬들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로봇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다. 머리를 비우고 화려한 액션과 파격적인 변신 장면을 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끝판대장” 오승환 은퇴... 삼성 라이온즈 21번 영구결번 지정

지난 30일,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43)이 은퇴했다. 1982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난 오승환은 경기고-단국대 졸업 후 2005년 삼성 라이온즈 2차 1라운드(전체 5번)로 지명되며 KBO 리그에 발을 내디뎠다.

데뷔 첫 해 10승 1패 16세이브, 리그 최초 '트리플 더블'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이후 2년 연속 세이브왕을 차지하는 등 매 시즌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삼성의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했다. 2009년에는 부상으로 잠깐 주춤했으나 회복 후 2011년 무패 47세이브를 기록하며 커리어하이를 달성했다. 오승환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삼성 왕조의 한 축을 담당했다.

오승환의 직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힙과 회전이 압도적이고 위력적인 직구로 평가받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오승환은 2014년 한신 타이거스로 이적하며 일본 무대로 진출했다.

오승환은 NPB 리그에서도 두 시즌 만에 80세이브를 기록하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2015년에는 NPB 리그 구원왕, 포스트시즌 MVP까지 수상하며 NPB 리그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후 2016년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이적하며 미국 무대로 진출했다. MLB 리그

첫 해 16세이브, 다음 해에 20세이브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3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 후 2019년 오승환은 다시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했다. 그리고 2023년 오승환은 KBO 리그 최초 400세이브,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25년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549세이브라는 불멸의 숫자를 남겼다.

KBO는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쓴 오승환을 기념하고자 은퇴 투어를 개최했다. 이로써 오승환은 이승엽, 이대호에 이어 세 번째이자 투수로서는 최초로 은퇴 투어를 진행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은퇴 투어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의 여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비판의 여론보다 KBO 리그의 대기록을 보유했기에 은퇴 투어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여론이 더 컸던 만큼 은퇴 투어는 문제없이 개최됐다. 투어는 △8월 7일 SSG 랜더스(인천) △8월 28일 두산 베어스(잠실) △8월 31일 한화 이글스(대전) △9월 10일 KIA 타이거즈(광주) △9월 18일 NC 다이노스(창원) △9월 20일 LG 트윈스(잠실) △9월 26일 롯데 자이언츠(부산) △9월 28일 키움 히어로즈(고척) 순으로 진행됐다. 각 구단은 오승환의 은퇴를 기념하는 현장 영상과 함께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식을 진행한 후 선수단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 출처 : 삼성라이온즈

은퇴 투어가 모두 끝난 후 3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오승환의 은퇴식과 영구결번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로써 오승환은 KBO 역대 18번째 영구결번이자 이만수, 양준혁, 이승엽에 이은 삼성 라이온즈의 네 번째 영구결번이 됐다. 오승환은 구단을 통해 "투수로서 다양한 리그에서, 정말 많은 경기를 뛴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동안 많은 분이 보내 주신 응원을 보내 주셨다. 모든 분께 감사했고, 은퇴 후에도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